

사회 감시자로서의 사진

김형곤*

(동명정보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다. 그렇지만 사진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사진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기록하고, 분류하고, 통제하는 사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이 발명된 19세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푸코가 언급한 판옵티콘, 규율적 기구 등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한 근대적 주체에 대한 지식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은 사회의 표준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억압적인 기능'과 체제 내에서의 사회적 성공을 소망하는 순응적인 개인을 만들어내는 '영예로운 기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진의 이러한 역할은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감시 카메라의 역할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키워드: 사진, 감시, 푸코, 주체, 판옵티콘, 규율

1. 들어가는 글

현대 생활에서 사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인간 활동을 생각하기 어렵다. 사진은 영화·텔레비전 등과 같은 매스 미디어의 출발점이었고,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수만 수천의 신문과 잡지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 hgkim@tit.ac.kr

사진은 이렇게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사진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의식하지 않게 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사진은 계층을 가리지 않는 평등의 상징이 되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카메라를 소유하고 있고, 쉽게 사진을 찍는다. 현대인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의 대상이 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사진 찍기의 대상이 되는 한편으로, 무수히 많은 사진을 생산해 내는 생산주체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진은 프로인트(Freund, 1974/2001, 6쪽)의 말처럼 “상인·공무원·공장주의 집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직공의 집에서도 보일 정도로 계층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진은 사회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흔한 일상생활의 환경이 되었다. 그러나 사진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진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형일(2001, 146쪽)에 의하면, 언론학 분야에서 저널리즘 사진을 종종 다루었지만 대개는 특정 사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이나 저널리즘 사진에 대한 개론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사진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이면서도,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언론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변방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또 사회과학 전반에서도 사진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주형일, 2001, 147쪽). 첫째, 사진이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결여한 개인의 즉흥적 작업의 결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다. 사진은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것이기에, 사회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둘째, 사진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진으로부터 모든 사회적 기능을 제거하고 순수한 미적 형태로서 사진을 보려 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무의미한 대상으로 머물게 된 것이다.

사진에 대한 연구에서 사진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것

은 사진의 역사에 대한 많은 설명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많은 경우에서 사진의 역사는 사진 예술의 역사가 되거나 사진 기술의 발전사로 서술되어 있다(Lemagny & Rouille, 1986; 伊藤俊治, 1988; 金丸重領, 1970; 강상규, 1976; 최인진, 2000). 사진 발명 초기부터 이어져 왔던 예술로서의 사진 혹은 예술 생산의 보조적 도구로서의 사진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사진 역사의 주요한 부분으로 서술되어 있거나,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¹⁾로부터 프랑스 화가 다게르(Daguerre)가 발명한 다게레오타입²⁾을 거치는 사진기술의 발전으로 역사를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것은 사진을 예술의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학문적 전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진에 대한 연구와 사진의 역사에 대한 일반적 서술에서 사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사진은 사회의 발전, 사회의 유지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도구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곳곳에는 사진이라는 시각적 증거물을 만드는 장치인 카메라가 산재해 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도로 위에서, 엘리베이터나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는 24시간 작동하는 카메라의 시선을 받고 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저편에 있는 인공위성

-
- 1) 카메라 옵스큐라는 현대 카메라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오는 광선이 영상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10세기의 아라비아에서는 밖으로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어두운 방(카메라 옵스큐라)에서 일식을 관찰 하였다고 한다. 르네상스 무렵부터는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구멍에 렌즈를 끼워 넣었고, 카메라 옵스큐라의 크기도 점점 작아져서 들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어졌다. 방에서 작은 오두막으로, 다시 작은 천막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는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상자로까지 축소된 것이다. 그 당시 서구 예술가들의 중요한 목표는 사실적인 묘사와, 원근법적인 착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확한 배치였기 때문에, 카메라 옵스큐라는 화가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도구였다(Lemagny & Rouille, 1986/1993, 14-18쪽).
 - 2) 1837년 프랑스 화가 다게르(Daguerre)가 발명한 사진법으로 은판사진법(銀板寫眞法)이라고도 한다. 연마한 은판의 표면에 요오드화은의 감광막을 만들어 30여분 동안 노출한 후 수은증기로 현상해서 양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최초의 성공적인 사진술이다.

의 카메라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영상기술의 발전은 사진과 카메라가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³⁾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감시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의 시선을 통해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하는 개인을 찾아내는 작업은 사진이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작동되는 감시 카메라의 역할과 같은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이 발명되었던 시기의 서구 유럽사회는 산업사회로 접어드는 근대화 작업이 한창이었던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사진에게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근대 사회의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신적 질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의 출현일 것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곧 질서를 어떻게 확보해 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한귀영, 1997, 166쪽). 이런 상황에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산업화와 함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농촌으로부터 이주해 온 유랑민들이 증대되면서, 이들을 분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필요가 생겨난 것이다. 리스터(Lister, 1995, p. 43)는 사진이라는 테크놀로지가 “사진의 발명 이후 20년 동안 감시와 범주화와 통제 수단”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진은 근대 사회의 국가 권력이 자유로운 개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푸코(M. Foucault)가 『감시와 처벌(Surveiller et Punir)』(1975)에서 언급한, 근대적 주체(subject)를 생산해

3) 휴대용 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카메라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목욕탕에서, 강의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찍고 있는 것 아닌가를 의심해야만 한다.

내는 규율적 기구의 역할과 사진이 발명되었던 시기의 유럽 사회에서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관련시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구 근대화와 사진의 사회적 역할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진이 발명되고 발전했던 시기에 사진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의 탄생 원인을 사회적 변인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견해는 사진이 서구 사회의 근대화에 의한 시대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근대화와 연관된 사회 기구로서 사진의 역할을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은 사진을 과학 발전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도구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보들레르(Baudelaire)에 의하면, 사진은 “여행객의 앨범을 풍요롭게 해준다. 기억에서 사라질 것을 정확하게 되살려준다. 박물학자의 서재를 산뜻하게 꾸며주고, 눈썹 만한 동물을 확대해주며, 천문학자의 가설을 확실한 정보로 뒷받침해”주는 존재이다. 보들레르는 여행객의 편리, 과학적 편리를 위해 사진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Avril, 2000/2001, 228-229쪽). 파리의 천문대장이었던 프랑수아 아라고(Francois Arago)도 프랑스 국회 보고서⁴⁾에서 천체 관측 사진과 현미경 사진의 예를 들면서 여러 과학 분야의 발전에 사진이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중동 지방과 같은 낯선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위해서도 사진의 기록성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사진은 발명 초기에서부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실제로 보지 않은 것을 가시화시켜주고, 그 존재를 증명해주는

4) 아라고는 1839년 7월 3일 프랑스 하원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다게르의 사진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부에 의한 매입을 제안했다. 프랑스 정부는 1839년 8월 19일에 다게르의 다게레오타입의 매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최인진, 2000a, 57쪽).

실증적 도구로서 그 역할이 막중함을 인정받았다.

실증적 도구로서 사진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한 데에는 부르주아 계급의 상승과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변화가 뒷받침되었다. 경제적 성공으로 힘을 갖춘 부르주아는 자신의 통제 하에 두게 될 세계에 대한 정확한 목록의 작성이나 완벽한 탐사를 위해 객관적인 사물의 묘사가 가능한 사진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현실세계를 신속하고도 정확하며 이해하기 쉽도록 가시화하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드는 재현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Lemagny & Rouille, 1986/1993, 22-23쪽). 19세기 프랑스에서 사진이 발명되고 확산되어 나가던 시기는 실증주의의 확산과 일치하는 시기였다. 실증주의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산업화의 과정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사진의 최초 형태인 다케레오타입이 출현하였을 때 프랑스 정부에서는 카메라가 세부적인 사실들을 포함할 때 나타나는 “수학적 정확성”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밀함”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Kracauer, 1960/2000, 130쪽). 여기에서 사진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19세기 들어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서 사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두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진의 사회적 역할은 서구 근대화의 주도 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적 민주화 기구로서 사진의 역할이다.

사진이 발명된 이후, 처음에 사진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예술의 형태인 회화와 비교되고 평가되어졌다. 원래 사진의 발명 목적도 회화의 복제수단으로서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 사용하는 카메라의 원형인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를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기 위한 복제도구로 썼다. 회화의 복제기술로 일찍부터 판화가 있었는데, 판화기술은 18세기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 이는 근대 시민사회의 성립과 함께 등장한 부유층(부르주아 계급)의 회화 소유욕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풍조 속에서 보다 더 정밀하고, 다량의 복제가 가능하면서도 값이 저렴한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신흥세력인 부

르주아 계층은 이를 매우 반갑게 받아들였다. 이렇듯 사진은 애당초 새로운 판화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졌다(<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4343>).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백과사전의 사진 부분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사진의 발명 목적을 “회화의 복제수단”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사진을 상승 중인 부르주아 계급의 회화 소유욕을 저렴한 가격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진의 등장은 귀족 계급에 의해 독점되어 있었던 회화와 같은 예술작품의 소유, 수용을 깨뜨리는 민주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사진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진이 그 이전의 초상화가 담당했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대 이전 시기에 초상화를 소유할 수 있었던 계층은 귀족들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초상사진이 등장하면서 소유계층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상징적 민주화 기구로서 사진의 역할이다. 실제로 발명 초기에 사진은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초상화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각광받았다. 근대화에 의해 사회계급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초상사진에 대한 대량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중산계급인 부르주아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초상화를 대신하여 비교적 싼 값에 제작할 수 있는 초상사진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초상을 제작하게 한다’는 것은 상승 중인 사회계급에 속한 개인들이 자신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지위상승을 보여주고, 또한 사회적 평판을 누리는 계급 속에 스스로를 귀속시키는 상징적 행위의 하나였기 때문이다(Freund, 1974/2001, 13쪽). 여기에서 사진은 초상화의 소유계층을 확대시키는 민주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사진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즉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이다. 리스터(1995/2000, 43쪽)에 의하면, 1870년대부터 사진은 노동자들과 부랑아들, 범죄자, 병자, 미친 사람, 도시 빈민들, 식민 종족들을 사회적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고, 이러한 역할로 인해 사진은 사회를 모니터하고 규칙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귀족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초상화의 소유 계층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역할만 담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진이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근대 사회의 신흥 지배계급인 부르주아 계급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다.⁵⁾ 부르주아 권력집단에 속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은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억압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사진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사회가 정한 정상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진은 사회에서 권장하는 모범이 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주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범적인 인간 주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다음 장에서는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이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사회 감시자로서의 사진

앞서 서술한 대로 사진은 자신이 발명되었던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근대 사회에 적합한 인간 주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사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상사진의 예를 든다면, 사진이 발명되었던 초기에 초상사진은 각 가정에 전시되는 사적 소유물로서 기능하였지만, 한편으로 국가 권력유지와 선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권력자들의 초상사진은 공공기관에 전시되고 명함판으로 제작,

5) 초상 사진의 경우 초상화에 비해서는 그 가격이 낮은 것이었지만, 일반 대중이 소유하기에는 비싼 것이어서 대체로 소유 계층은 신흥 부유층인 부르주아 계급에 한정되어 있었다.

보급되었다. 한편으로 죄수들의 초상을 찍어두어 탈출과 누범 방지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초상사진은 지도자, 영웅, 도덕적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과 범죄자,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등의 무가치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초상사진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위계질서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Sekula, 1989, pp.345-346).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올려다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내려다보는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해내게 되었다. 이처럼 사진은 발명 초기에서부터 사회 내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람과 사회에서 배제되어야 할 사람을 가려내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진의 역할을 ‘억압적인 기능’과 ‘영예로운 기능’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에 앞서 사진의 이러한 역할이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언급한 근대화된 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생산케 하는 규율적 기구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 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규율적 기구로서의 사진

푸코는 『감시와 처벌』(1975)에서, 사회경제적 변환이라는 맥락에서 주체를 합리화시키고 근대화시킨 과정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푸코는 산업혁명 이전 다수의 노동자, 도시 거주자, 학생, 환자, 그리고 다른 집단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의 출현과 일치했음을 보여준다. 개별자들(individuals)이 끊임 없이 권력의 옛 체제로부터, 농경과 장인생산으로부터, 대가족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유랑하는 주체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탈중심화된 새로운 배열이 고안되었다. 푸코에게 19세기의 근대성은 중앙집중화된 군주의 권력이 아닌, 분산된 권력의 그물망이 관리 가능한 주체들을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푸코(1975/1994, 296-300쪽)는 전형적인 감시 메카니즘으로서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건축 모델인 판옵티콘(Panopticon)을 예로 들고 있다. 판옵티콘은 중앙 타워에서 주위에 둘러싸인 독방들을 내려다 볼 수 있게 구성

되었다. 빛은 건물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독방들을 비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시당하는 자가 현재 자기 자신이 주시받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 지를 결코 알아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항상 주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벤담은 권력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판옵티콘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판옵티콘의 권력 행사자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관리책임자가 부재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내방객, 그리고 하인조차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익명적이고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금자는 더욱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한 의식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푸코가 언급하는 판옵티콘 장치(panopticon machine)는 벤담이 이야기했던 폐쇄적이고 한정적인 특정 공간에서 일어나는 감시의 체제가 아니라, “권력이 사회 토대의 가장 세밀한 단위에까지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306쪽)이다. 또한 “그 권력은 자신의 최대한의 강력한 힘을 신체를 가시적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차이를 짓고, 비교하는 여러 관계에 의해 개인화된 신체 속에서 얻는 것”(307쪽)이라고 설명한다.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와 근대의 규율(discipline)이 작용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고전주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규율은 분명하게 규정되고 비교적 폐쇄된 장소-병영, 학교, 대규모 작업장-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대의 규율은 “사회를 관통하면서 도처에서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 장치의 그물망으로 만들어진 것”(307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율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에 부정적인 개인을 차단하는 억압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유용하고 순종적인 개인을 만들어 내는 기술로도 작용한다. 이것은 뒤에 이야기할 사진의 ‘억압적인 기능’과 ‘영예로운 기능’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우리의 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spectacle)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원형극장의 계단좌

석 위나 무대 위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권력에 포위된 판옵티콘 장치 안이다”(317쪽)라고 말한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벤담의 판옵티콘 체계를 주요 이론적 대상으로 사용하면서 인간 주체가 관찰의 대상이 되어 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 감시자로서의 사진’이라는 사진의 사회적 역할은 푸코가 이론적 대상으로 삼은 판옵티콘 장치 속에서 인간 주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규율적 기구의 역할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신체를 관찰하고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는 규율적 기구의 역할은 사진이 발명되었던 시기부터 떠맡게 된 사회적 역할이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파리의 경찰관이었던 베르티용(Bertillon)은 사진을 이용한 범인식별체계를 통해 범죄자를 분류하고 감시하였다. 이 때 사진은 범죄자의 신체를 구성하고 가시화하는 규율적 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회적 신체에 대한 규제와 권력의 침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진은 근대 사회의 권력이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지닌 부르주아 신체를 구성하고 가시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가시화되고, 개별화되어 있는 고립된 신체는 지식과 권력의 대상 혹은 주체로 전환된다(Lalvani, 1993, pp. 461-462). 여기에서의 주체는 결국 사회통제의 수단에 의해 훈련되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주체(subject)’이다. 규율적 기구로서 사진적 공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를 생산하고, 신체를 분석하고, 규율하고, 규제하고 있다.

결국 근대 사회에서 사진을 통해 얻어진 신체에 대한 지식은 권력이 생산하고,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진을 통해 생산된 모든 지식은 공평할 수도 합리적일 수도 중립적일 수도 없다. 대신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말한 지배계급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문화적 헤게모니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Pultz, 1995/2000, 9-10쪽). 존 태그(John Tagg, 1988)은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갈등이 표출되고 격화되었던 18세기 후반 이후의 유럽 사회에서 사진은

처음에는 개개인을 찬양하는 수단에 불과했지만, 그런 다음에는 사회적 통제수단으로 기능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사진은 권력의 요구에 의해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2) 사진의 억압적인(oppressive) 기능

사진은 발명 초기에서부터 범죄자를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세쿨라(Sekula, 1989)는 표준적이고 자유주의적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사진의 역사와는 달리, 사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부르주아 초상화를 보급하는 민주적 역할만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진은 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억압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세쿨라에 의하면, 사진이 사회적 일탈자를 기록하는 법적 증거로서 역할하게 된 것을, 1840년대에 만성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하위 프롤레타리아들이 점점 더 많이 도시 속에 생겨나고 존재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체계적인 노력의 맥락에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쿨라는 사진의 억압적 기능을 설명하기 위하여, 1880년대에 채용된 범죄자의 신체를 기술하는 두 가지 체계를 예로 들고 있다. 우선 파리의 경찰관이었던 알퐁스 베르티용(Alphonse Bertillon)이 만들었던 현대적 범인식별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베르티용의 체계는 초상사진, 신체측정기록 등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하여, 이를 포괄적이고 통계적으로 짜여진 파일 시스템으로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베르티용은 첫째로, 전문적인 범인인이 위장을 하고, 신분을 속이고, 인생경력을 여러 가지로 꾸미는 것을 방지하려 하였다. 신체측정학, 카메라의 시각적 정확성, 정교한 관상학적 어휘, 통계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둘째로, 베르티용은 기록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개별적인 카드를 알기 쉬운 체계로 조직하려 하였다. 베르티용은 자신의 체계에 의해 10만 명의 남자 죄수와 2만 명의 여자 죄수를 1883년과 1893년 사이에 분류하고서는, 자신의 체계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랑하

였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4,564명의 재범들을 “실수 없이” 식별해냈다. 베르티용 체계는 널리 퍼져나갔고, 특히 미국에서 열정적으로 수용되었으며, 경찰방법의 국제화와 표준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사진에 의한 인체측정의 체계는 지문채취체계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데, 1910년대 후기에 와서는 지문채취체계가 우위를 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세쿨라가 언급했던 또 하나의 사례는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우생학(eugenics)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갈튼(Francis Galton)이 만들어낸 합성초상(composite portraiture)의 방법이다. 갈튼은 범죄학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전적이고 인종적인 “개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범죄형”의 추구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합성사진을 여러 번 적용하여, 범죄형에 대한 순전히 시각적인 환영(apparition)을 구축하려 하였다. 갈튼은 이미지들이 합당한 평균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합성 이미지를 이루는 적은 샘플로부터 더 큰 일반성을 추론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계급의 사진 30장을 조합하여 “통계적 불변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갈튼은 유전적 법칙의 일반적 증거를 시각화하려 하였고, “적자(the fit)”의 증식을 장려하고 “부적격자(the unfit)”의 증식은 방지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인간의 번식에 개입하려 하였다. 그는 상습 범죄자가 천한 계급의 후손을 낳을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상습 범죄자에게 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지지하기도 했다.

플츠(Pultz, 1995/2000, 26-30쪽)도 세쿨라와 마찬가지로 사진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를 범죄 방지를 위한 사진의 사용에서 찾고 있다. 플츠는 베르티용의 범인식별체계와 유사한 형태를 1870년대 영국에서의 사진에 관한 정책에서 찾고 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화에 등장하게 된 19세기 영국의 산업사회는 도시인구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익명의 사회를 탄생시켰고, 예전과는 달리 범죄자들은 익명으로 기존의 법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1870년대 영국에서의 사진 정책이었고, 이것은 범죄자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신분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었다. 1871년 토마스 존 바르나도(Thomas John Barnado)는 런던 서부에 있었던

소년원에 사진가들을 고용해서 소년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나갈 때의 모습을 기록했다. 바르나도는 소년들이 소년원에 수용되기 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와 연결시키는 데 사진을 사용하였고, 그곳에서 도망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사진에 찍히는 것은 개인이 관찰과 통제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코르뱅(Corbin, 1982/2002, 598-599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발장, 에드몽 단테스의 이야기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전혀 불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으리라는 주장을 한다.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19세기 중반 이전까지의 유럽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코르뱅에 의하면, 1880년경까지는 재치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신분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흔적을 취득하고 싶다면 탈취하기로 마음먹은 동료의 생년월일을 아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다. 이런 속임수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증인뿐이었으며, 그런 증인을 만날 확률은 꽤 낮았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시 사람들이 가짜 신분으로 위장한 괴물이나 복수를 꾀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던 공포심의 강도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이 시기에 미야, 재범자, 매춘부의 신원 확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매춘 규제 체계를 만들려 하였지만, 신원 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고 한다. 변장한 인물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어려움이 많았었다. 사진의 이용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베르티용의 신원 확인법은 그 엄밀성 때문에 사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변신은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코르뱅은 사진이 발명되었던 시대에 사진의 주요한 사회적 기능은 사회의 부적격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진은 발명 초기에서부터 사회의 표준적 규범에서 벗어난 이들을 분류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는 중요한 사회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3) 사진의 영예로운(honorific) 기능

세쿨라(1989, p.346)는 사진의 ‘영예로운 기능’이란 사진을 통해 사회적 신분 상승에 대한 환상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현재 체제 내에서의 사회적 성공을 소망하는 체제 순응적인 개인을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9세기 중엽의 유럽 사회에서는 초상사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도 근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위대한 사람의 초상사진을 널리 유포해서 일상의 체험 속에서 도덕적 본보기가 되는 인물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적극적인 지식의 생산을 담당하였고, 근대 사회에 걸 맞는 주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858년에 명함판 사진이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나폴레옹 3세, 빅토리아 여왕, 링컨 대통령과 같은 국가원수의 사진이 일반 대중들에게 팔려나갔다(Lemagny & Rouille, 1986/1993, 69-73쪽).⁶⁾ 이 사진들은 하층 부르주아 계급에게 주로 판매되었는데, 이들은 유명인의 사진을 소유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을 나타내는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진은 일반 대중이 모방해야 할 모범적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해야 할 도덕적 모범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기도 했다.⁷⁾

6) 대중들에게 자신의 명함판 사진을 보급하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간파한 나폴레옹 3세, 빅토리아 여왕, 링컨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들의 초상사진이 상투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되기를 원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엘버트 왕자의 어깨에 부드럽게 팔을 둘러고, 나폴레옹 3세는 어린 황태자와 함께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고, 링컨 대통령은 깊은 사색에 잠긴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Lemagny & Rouille, 1986/1993, 92쪽).

7) 한국 사람들의 과거 기억 속에 존재하는 권력자들의 권위적인 사진 이미지들도 그러한 목적을 가진 것이었을 것이다. 과거 어디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었던, 입을 꼭 다문 근엄한 표정의 대통령 사진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던 이순신 장군,

사진은 모범적인 이미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모방하고 싶은 이미지 속의 주인공이 되는 환상을 현실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다. 명함판 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초상 사진가들은 사진관에서 부르주아 세계와 연관된 수많은 표식을 사용하게 되었다(사진의 배경, 복식, 다양한 장신구들). 이러한 사진관에서 찍힌 인물들은 개성을 상실한 채 부르주아적 위상을 규격화한 표준적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Lalvani, 1993, p.451). 하층 계급의 경우에는 사진관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계급상승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우리가 사진관에서 흔히 보았던 반질반질 빛나는 비로드 천 장식과 금빛의 의자, 사진사가 요구하는 당당한 자세, 비현실적인 배경,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한 의상 등은 사진을 통해서 현재보다 나은 처지에 있게 되기를 원하는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며, 노동계급에게 자신의 계급적 배경을 감출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러한 사진 찍기의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현재의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모범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폴츠(1995/2000, 9쪽)는 사진이 공고하고 항구적인 권력이 필요로 하는 수단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사진을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진과 사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진은 권력이 정한 도덕적 기준을 따라 사회적 영역의 위계질서를 영속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과 이미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사진은 권력이 요구하는 순응적 주체를 생산해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영예로운 존재로 인정되는 인물의 사진, 부르주아 초상화의 배경과 똑같은 배경에서 찍혀진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표준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사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 등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인물이 누구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4. 사회 감시자로서의 사진과 현대 사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진은 자신이 발명되었던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권력의 요구에 의해 인간의 신체를 기록하고, 분류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지식 생산의 수단으로서 혹은 사회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진의 사회적 역할은 보다 복잡해지고, 사진과 경쟁하는 수없이 많은 다른 매체들이 생겨난 지금에는, 19세기 유럽 사회와 비교해볼 때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사진이 사회 감시자로서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영상기술은 사회 감시자로서 사진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최근에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얼굴 인식 시스템은 디지털 영상기술이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으로 들어가는 주요 검문소에 새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는 공사를 비밀리에 벌였다. 이 카메라는 검문소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찍어 사진을 중앙컴퓨터로 전송하면 컴퓨터는 곧바로 얼굴 분석 작업에 들어가 얼굴 윤곽, 눈썹 위치, 귀 모양 등을 모두 정밀한 수치로 만든 뒤 저장돼 있는 자료와 대조작업을 벌인다. 컴퓨터엔 팔레스타인 이슬람근본주의 단체인 하마스 회원을 포함해 이스라엘이 요주의 인물로 꼽고 있는 수천여 명의 얼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돼 있다. 한 사람 얼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인터넷 한겨레, 2001년 8월 5일, [http:// 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1/08/010000000200108052309447.html](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1/08/010000000200108052309447.html)).

미국 워싱턴 경찰당국이 거의 모든 공공시설과 거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만간 워싱턴 경찰청 건물에는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비밀경호국 등 각종 수사·보안 기관들로 구성된 '공동작전 지휘본부'라는 이름의 통합 감시체제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3일

보도했다. 이곳에서는 백악관·의사당은 물론 쇼핑센터·도서관·아파트와 주요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들 통해 주변의 모든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게 된다.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에 설치된 고성능 카메라로는 반경 800m 밖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화면을 확대해 정밀 감시할 수 있다(인터넷 한겨레, 2002년 2월 14일,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1/2002/02/007100001200202142127012.html>)

이 두 가지 인터넷 신문 기사는 디지털 영상기술에 의한 감시가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고,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공 시설과 거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찍혀진 얼굴이 컴퓨터로 전송되어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의 얼굴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어진다는 것은, 범죄자를 감시하고 가려낸다는 목적 하에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얼굴인식시스템은 시작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려 시민단체와 일부 학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반발 때문에 미국 워싱턴 경찰은 얼굴인식 시스템의 도입을 유보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감시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모든 행동을 누군가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다면 누구라도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윌 스미스 주연의 할리우드 영화 『애너미 오브 스테이트』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이 달부터 실시하는 무인감시 카메라 교통단속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 가로등이나 전봇대, 건물 등등에 숨겨져있는 첨단 카메라가 교통경찰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 밤낮도 악천후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무인단속의 특징. 이 때문에 아내 아낀 여자를 태우고 가다 자기도 모르게 찍힌 위반사진이 배달돼 이혼까지 당하는 사례가 선진국에선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탈 정도다(조선일보, 1994년 9월 1일 31면).

무인감시 카메라 교통단속은 이제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다. 한국에서도 도입 초기에는 위반사진 속에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나 가정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목욕탕 탈의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인권 침해 가능성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MBC 『뉴스데스크』, 2003. 1. 8).⁸⁾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푸코가 설명한 판옵티콘의 모델처럼, 사진의 생산 장치인 카메라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무려 250만대의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인터넷 한겨레, 2002년 2월 14일,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1/2002/02/007100001200202142127012.html>).

결혼 3년 된 김영훈-신영수 부부 23평 아파트 거실 벽에는 대문짝만한 결혼 사진이 걸려있다. 행복의 절정에 선 공주와 선망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왕자. 일상의 삶은 이제 조금은 빛 바래고 때론 누추하지만, 사진 속의 신랑 신부는 여전히 영롱한 동화로 우리들 꿈에 남아있다(조선일보, 1999년 4월 21일 35면).

현대 사회에서 사진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억압적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의 ‘영예로운 기능’도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의 사회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위의 신문기사에서처럼 신혼부부의 집이라면 거의 다 하나씩 걸려있는 결혼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환상을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화 속 공주와 왕자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결혼사진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환상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은 거의가 관습화된 배경과 의상, 포즈를 취한다.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관습화된 모습은 결혼 사진을 찍고, 이를 게시하는 신혼부부에게

8) 탈의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감시 카메라가 목욕탕 탈의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알몸을 찍게 되고, 이것이 인터넷에 ‘탈의실 몰카’라는 제목으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모범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손가방처럼 아무데나 휴대가 가능한 나의 이상적인 모습. 스타가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해주는 마술상자. 기계를 통해 즉석에서 현실로 바뀌는 인기 스타와의 다정한 모습. 아무래도 맥가이버 칼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보이는 스티커 사진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준다(조선일보, 1999년 4월 28일 35면).

이 신문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티커 사진은 아주 손쉽게 환상이 현실적인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을 들인 화장과 의상의 준비 없이도 쉽게 변신이 가능한 것이다. 초기의 스티커 사진들이 즉석에서 볼 수 있고, 아무데나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다음 세대의 스티커 사진들은 가상적인 이미지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를 위해 가발이 제공되고, 『보그』나 『하퍼스 앤 바자』와 같은 유명한 패션 잡지의 모델이 되거나, 영화 포스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스타처럼 카드로 만들어지며 달력과 배지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강홍구, 2001, 32쪽). 이렇게 가벼운 변신이 가능해진 것은 사진이 디지털화되었기 때문이다. 스티커 사진을 통해 스타 이미지에 가까운 자신의 이미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이미지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들은 스티커 사진의 가볍고 명랑한 이미지에서 벗어난 다른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 한다. 스티커 사진을 생산하는 카메라는 사진을 찍는 동시에, 찍히는 대상이 스티커 사진의 환상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는 글

결론을 쓰기 전에 필자의 경험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필자가 있는 학교의 교수연구실에서 몇 번의 도난 사건이 있었다. 필자의 연구실에도 도둑이 들어 몇 가지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었다. 이런 도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구실의 잠금장치를 강화하고, 쇠창살을 설치하고 했지만, 도난 사건은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도난 사건은 생기지 않았다. 참 편리하고 유익한 물건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시 카메라에 비친 영상들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모여있는 통제실을 보게 되었을 때, 경악의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교수연구실 문을 향해 있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도둑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동안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잡아낸 영상기록을 훑어보면 내가 언제 출근하고, 몇 번 들락날락거렸고, 누가 연구실에 찾아왔고, 언제 퇴근했는지 등의 사생활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경악감을 금치 못하였다. 이후 연구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자유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경험일 것이다. 그만큼 감시의 시선은 보편화되어 있고, 카메라라고 하는 기계 장치의 관찰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전 시대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컴퓨터로 만든 디지털 이미지의 확산은 이전과 다른 시각적 경험을 하게 한다. CAD, 합성 홀로그램, 비행 시뮬레이터,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상 인식 시스템, 텍스처 매핑, 모션 컨트롤, 가상 현실 헬멧, MRI 등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이미지의 등장은 전세계적인 정보산업 수요와 보건 분야의 요구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사, 경찰 체계의 커져가는 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Crary, 1998,

pp. 11-12). 이처럼 사진 영상은 처음 발명되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의 디지털 사회에서도 사회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푸코는 근대 사회가 스펙터클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라고 주장한다. 근대 사회의 이상으로 제시하는 자유롭고 개별적인 인간 주체의 모습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그물망 속에서 감시당하는 대상인 것이다. 사진을 생산해내는 카메라가 생겨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카메라 옵스큐라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사진이 발명되고 근대 사회가 들어서면서 그 시선의 방향은 오히려 인간을 향하게 되었다. 인간이 관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처럼 사진이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모습, 인간이 감시와 관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습을 사진이 처음 발명되고 발전되기 시작한 19세기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19세기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바로 내 곁에서 일상적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사진의 사회적 역할을 총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지 못했고, 서구 사회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 처음 사진이 도입되었을 때는 어떤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해 보여주지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상규 (1976). 『韓國 寫眞史』. 대구: 일심사.
 강홍구 (2001). 『시시한 것들의 아름다움』. 서울: 황금가지.
 주형일 (2001). 부르디외와 사진: 사진행위에 대한 부르디외의 분석이 갖는 의의와 한계. 『한국언론정보학보』 17호, 145-178.
 최인진 (2000a). 사진 수용 단계에 있어서 다게레오타입의 전래 유무에 관한 연구. 김승곤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한국 사진이론의 지형』. 서울: 홍디자인 출판부, 51-92.

- 최인진 (2000b). 『한국사진사』. 서울: 눈빛.
- 한귀영 (1997). 부랑자의 탄생: 근대인과 그 타자성. 서울 사회과학 연구소.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 서울: 새길, 165-200.
- 伊藤俊治(이토 도시하루) (1988). 『20世紀 寫真史』. 이병용 역 (1994). 『20세기 사진사』. 서울: 현대미술사.
- 金丸重嶺(카나마루 시게네) (1970). 『예술로서의 사진』. 한정식 역 (1988). 서울: 해돋이.
- Avril, N. (2000). *Le Roman du Visage*. Paris: PLON. 강주현 역 (2001). 『얼굴의 역사』. 서울: 작가정신.
- Corbin, A. (1982). 개인의 비밀. in Michelle Perrot (ed.). *Histoire de la Vie Privée*. 전수연 역(2002). 『사생활의 역사』. 서울: 새물결, 583-692.
- Crary, J. (1998). *Techniques of the Observer - On Vision and Modernity in the Nineteenth Century*. Massachusetts: MIT Press. 임동근·오성훈 외 역 (2001). 『관찰자의 기술』. 서울: 문화과학사.
- Foucault, M. (1975). *Surveiller et Punir*. Paris: Gallimard. 오생근 역 (1994). 『감시와 처벌』. 서울: 나남출판.
- Freund, G. (1974). *Photographie et Societe*, 성완경 역 (2001), 『사진과 사회』, 서울: 눈빛.
- Kracauer, S. (1960). *Photography. Theory of Film : The Redemption of Physical Reality*. 오혜리 역 (2000). 사진. 『계간 사진비평』 9권, 129-143.
- Lalvani, S. (1993). Photography, Epistemology and the Body. *Cultural Studies* 7-3, 442-465.
- Lemagny, J. & Rouille, A. (1986). *Histoire de La Photographie*. Paris: Bordas S. A. 정진국 역 (1993). 『세계사진사』. 서울: 까치.
- Lister, M. (1995). *The Photographic Image in Digital Culture*. London: Routledge. 우선아 역 (2000). 『디지털 시대의 사진 이미지』, 서울: 시각과 언어.
- Pultz, J. (1995). *The Body in Photography*. London: Calmann & King Ltd. 박주석 역 (2000). 『사진에 나타난 몸』. 서울: 예경.
- Sekula, A. (1989). The Body and the Archive. in Richard Bolton (ed.). *The*

Contest of Meaning: Critical Histories of Photography. Cambridge: MIT Press, 343-389.

Tagg, J. (1988). *The Burden of Representation: Essays on Photographics and Histor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야후!백과사전 - 사진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4343>.

- 4대문안 교통단속, 몰래카메라 조심하십시오.(1994. 9. 1). 『조선일보』. 31.
집안 벽에 미술품 액자 대신 결혼사진 걸려.(1999. 4. 21). 『조선일보』. 35.
나도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1999. 4. 28). 『조선일보』. 35.
얼굴인식 시스템 인권 침해 우려.(2001. 8. 5).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1/08/010000000200108052309447.html>
미국수도 '감시 천국' 될 판.(2002. 2. 14). 『인터넷 한겨레』, <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1/2002/02/007100001200202142127012.html>
목욕탕 감시 카메라, 인권 침해 논란.(2003. 1. 8). MBC 『뉴스데스크』.

(최초투고 2002, 12, 2. 최종원고 제출 2003, 1, 9)

Photography as a Surveillant of the Society

Hyung-Gon Kim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Tongmyung Univ. of Information & Technolog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ocial role of the photography. The photography makes the people do not deviate from social discipline. In this meaning, the photography is a surveillant of the society.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role of the photography at the European society in 19th centu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above purpose of this study, the oppressive and honorific functions of photography are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surveillance through photography extends its areas to everyday life of the people. Seco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related to photographic image produces new types of surveillance. Third, the photography presents the images of model persons and the photography makes the people follow this images.

key words: photography, surveillance, Foucault, subject, panopticon, discipline